

11. 온 성(城)을 굽어보던 공신정(拱辰亭)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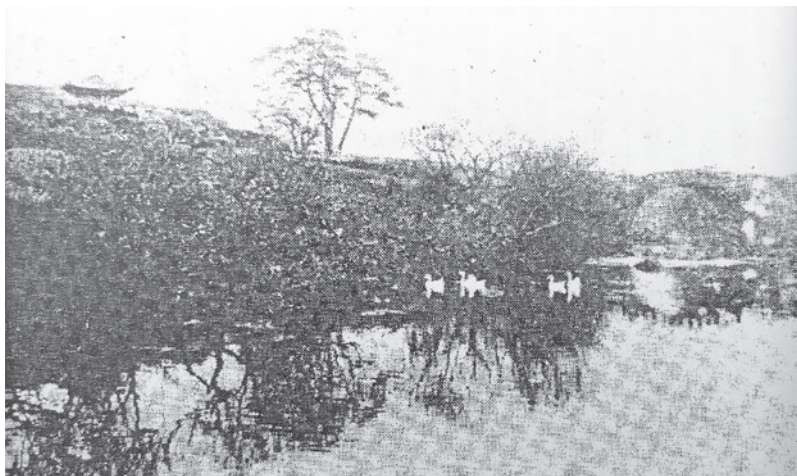
◎ 최적(最適)의 공원(公園) 여건, 상실(喪失)의 아픔만 남아 …

◎ 바위 · 고목(古木)이 우거져 성내서 으름가던 명소(名所)

제주목사가 도입하면 으레 한두번은 올라보는 곳이 공신정(拱辰亭)이다. 목사뿐 아니라 육지에서 들어온 손님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곳을 오르게 마련이다.

그것은 이곳이 제주성(濟州城) 안에서는 가장 높고 조망이 좋기 때문이었다. 동헌(東軒) 경내에 망경루(望京樓)가 있긴 했지만 여기서는 동헌 안과 근처 일대를 살필 수는 있어도 성안 구석구석을 살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공신정에 오르면 온 성안은 물론 성밖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고 한라산으로부터 먼 바다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성 일대의 지세를 한눈으로 알려고 하면 달리 이곳만한 데가 없었다.

22) 『한라일보』 제60호 (1989. 07. 01).



1920년대 초, 아직 '제주신사(濟州神社)'가 들어서기 전의 공신정(拱辰亭) | 그 오른쪽 등성 너머로 수령 5백년이 넘는 곰솔과 팽나무가 보이고 그 오른쪽으로 안경교와 옛 산지천(山地川)을 볼 수 있다.

처음 수문(水門) 누각(樓閣)으로

공신정이 생겨난 배경을 보면 산지천(山地川)의 홍수와 관계가 깊다. 1565년(명종 20) 목사 곽홀(郭屹)이 제주 동성(東城)을 증축하면서 산지천이 성내에 들게 되었고 1599년(선조 32) 목사 성윤문(成允文)이 그 북과 남으로 두 개의 수구(水口)를 만들게 되었다. 공신루는 원래 이 북수구의 문루(門樓)였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수문은 큰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파손되는 예가 많았다. 그러던 1652년(효종 3) 8월의 태풍 때는 큰 홍수로 말미암아 이 두 개의 수문이 한꺼번에 유실되고 말았다.

당시 목사는 『탐라지(耽羅志)』의 저자로 알려진 이원진(李元鎭)이었

다. 그는 서둘러 공사를 추진하면서 다락을 수문 바로 위에 세우지 않고 그 동쪽 독 위에 세우게 하였다.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만약의 경우라도 누각만은 살리자는 생각이었다. 그 이듬해 3월에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새로 창건한 누각은 공신루(拱辰樓)라고 명명하였다. 두보(杜甫)의 시에서 따온 것으로 높은 다락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는 뜻이었다.

공사가 만족하게 끝나자 이원진은 낙성식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수의 시를 남기고 있다.

성통가락맥	城通嘉樂脉
산저우영천	山底又靈泉
백치환삼리	百雉環三里
예홍음일천	霓虹飲一川
점풍우열치	占風憂湮齒
가일취화연	暇日醉華筵
회수창명활	回首滄溟濶
귀심북극현	歸心北極懸

성은 가락천 맥을 통하여
 산지물과 또 영천(靈泉)으로 이어지네.
 성벽은 3리를 두르고
 홍예다리는 한 내를 마시네.
 침략의 우환은 점쳐서 알아내고
 한가한 날에는 꽃자리에서 취하네.

머리를 돌리면 바다는 아득히 넓고
돌아갈 마음은 북극²³⁾에 달렸네.

그 뒤 1831년(순조 31)에 이르러 공신정은 목사 이예연(李禮延)에 의하여 지금 제주측후소가 있는 바로 서쪽 언덕에 옮겨 세워졌다. 먼저 있던 곳이 바로 산지천 언덕이어서 물 나르고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항상 붐볐고 또 여름에는 목욕하는 광경까지 보게 되어 마땅치가 않았다. 그러나 그 보다는 이곳에 옮긴 것이 바로 제자리를 찾았다고 할 것이다.

일제(日帝) 때 신사(神社)로 둔갑

이예연 자신이 이건기(移建記)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이 곳은 하늘을 우러러 기상을 알 수 있고, 먼 바다를 내다보고 온 성안을 굽어 볼 수가 있기도 하지만 오랜 고목들이 우거지고 바위가 곳곳에 솟아 있어 성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였다.

공신정은 그 뒤로도 장인식(張寅植, 1848년) 심현택(沈賢澤, 1884년) 홍종우(洪種宇, 1904년) 등 여러 목사가 보수를 거듭하며 일제 때까지 잘 보존됐었다. 그러나 1924년 일제가 이곳에 제주신사(濟州神社)를 세우면서 이 공신정이 헐리고 말았다.

일제로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동화정책을 펴는 마당에 최상의 구심점을 내세운 신도(神道)를 숭화시키기 위한 처사였겠지만 참으로 소

23) 신문에는 북국이라 되었지만 ‘북극’의 오기이다.



! 공신정 터(제주시 건입동) | 공신정은 1599년 성윤문 목사가 산지천 복수구의 문루로 세웠다. 1652년 대홍수로 수문이 유실되자 이원진 목사가 동쪽 독 위에 세웠으며, 1831년 이예연 목사가 동쪽 언덕 위 현재의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2014년 1월 제주기상청 옥상에서 촬영.

중한 문화유적이 하나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못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화복(禍福)은 꼬이는 새끼줄과 같다고 했던가. 이 신사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자 그해 10월, 제주시 건입동 청년들이 몰려가 신사도 부셔버렸다. 불과 22년만의 일이었지만 한번 없어진 공신정은 다시 되살아나지는 않았다.

이 공신정 터는 8·15 당시만 해도 측후소와 유서 깊은 삼천서당(三泉書堂)이 있었을 뿐 제주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넓은 녹지공간이었다. 도시공원으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유일한 지역이었으므로 당연히 살려야 했을 곳이었다. 그것을 당시 적산관리업무를 맡았던 세무서(稅務署)의 무능으로 쓸모없이 동강내 버리고 불량주택지구로 변모시키고 말았다.



! 공신정 방향에서 내려다 본 산지천과 제주항! 공신정은 성안을 한 눈에 조망하고, 제주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제주성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였다. 2014년 1월 제주기상청 옥상에서 촬영.

무지(無知)가 소멸시킨 유적(遺蹟)

지금 공신정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엔 어느 감리교회(監理教會)가 들어서 있고 둘레엔 비집어 들어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잡다한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무지와 시행착오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고 할 것이다.